

국제 도시관광 쇼핑 행동의 기초적 조사 연구Ⅱ

(1) 한국에서의 일본인 여행자의 행동 및 한일의 도시 매력 평가 분석

齋藤 參郎

아시아태평양센터 · 후쿠오카대학 경제학부 교수
후쿠오카대학 도시 공간 정보 행동 연구소 소장

本村 裕之

일본 문리대학 상경학부 강사

梶井 昌邦

후쿠오카대학 경제학부 강사

차 례

- | | |
|----------------------|--------------------------|
| 1. 연구의 방향과 목적 | 4. 한일 양국의 도시 매력 비교 |
| 2. 조사의 개요 | 5. 교통비와 도항 빈도의 관계에 관한 분석 |
| 3. 일본인 여행자의 관광 쇼핑 행동 | 6. 결론과 금후의 과제 |

1. 연구의 방향과 목적

최근 일본과 동아시아의 각국 사이에서 경제를 비롯해, 사회, 생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일본과 한국간에 그 움직임이 현저하다. 쓰시마 해협을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 한일 양국에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후쿠오카, 부산이라는 대도시가 입지하고 있어, 하나의 권역을 형성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 거기에서, 한일 해협권의 권역 형성을 통하여 인접 지역의 상호 발전을 촉진시키고, 보다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가기 위하여 부산발전연구원과 아시아태평양센터는, 공동연구의 테마로서 「한일 해협 도시관광 쇼핑권의 형성에 관한 조사 연구-부산·후쿠오카를 중심으로-」를 채택했다. 이 공동연구는 한일해협권을 1일 생활권으로 설정하고 이것을 도시관광 쇼핑권으로 형성하기 위한 정책을 모색함과 동시에, 그러한 정

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초적 조사 연구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국경을 초월한 권역 형성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권내에 입지하는 각각의 도시가 각 도시의 특색을 살린 도시 만들기를 행해 도시의 매력을 높여 타 도시와의 차별화를 도모하는 것, 또, 도시간에 상호 매력을 높여 상승효과에 의해 상권 자체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상권내의 도시간에는 경쟁과 협조의 전략을 어떻게 짜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입안해 갈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제를 추진해 가기 위해서는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배경이 다른 각국의 사람들의 기호나 행동 양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의 행동 양식을 미시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외국여행자의 실태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 입안의 기초적인 연구의 제1보를 내닫기 위해서 2000년 3월, 필자들의 연구 그룹은 상기 공동연구의 일환으로서 한일의 도시 매력 비교 조사를 실시하였다(齋藤 편 [1], 齋藤·本村[2]). 이 조사는 한국인 여행자를 대상으로 후쿠오카, 부산을 연결하는 2개의 항로인 비틀, 카멜리아의 선상에서 여행중 관광·쇼핑 행동과 도시에 대한 인식·평가를 묻는 것으로, 한국인 여행자의 관광·쇼핑 행동의 실태를 조사를 통하여 밝히고 있다. 齋藤·本村[2]에서는 후쿠오카와 부산간의 교통비가 내리면(오르면), 얼마나 일본으로의 도항(渡航) 빈도가 증가하는지(감소할지) 즉 일본으로의 도항 빈도 탄력성을 양케이트 조사에서는 얻기 어려운 소득의 데이터 없이 예측 가능한 방법을 제안하고 실제로 예측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필자들의 연구그룹은 2002년 3월, 두번째로 한일의 도시 매력 비교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2000년 3월 실시한 조사와 동일한 조사를 한국에 여행하는 일본인 여행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본 조사 데이터에 근거하여 일본인 여행자의 한국에서의 관광·쇼핑 행동의 실태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본 연구는, 상권내를 오가는 여행자의 행동·도시에 대한 평가를 관측함으로써 쓰시마 해협을 사이에 둔 상권내의 도시간 경쟁과 협조도시의 정책에 기여한다는 문제 의식(齋藤 편 [1], 齋藤·本村 [2])하에, 조사 연구의 축적을 행해가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조사연구의 목적은 다음 두가지이다.

첫째, 일본 여행자가 한국에 체류중, 특히 부산시내에서 어떤 관광·쇼핑 행동을 행하고 있는지 실태를 밝히는 것.

둘째, 일본 여행자가 일본의 도시, 특히 후쿠오카시와 비교해서 한국의 도시, 특히 부산시의 어떤 점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 본 연구의 데이터가 된 조사의 개요를 서술한다. 제3장은 일본인 여행자의 관광·쇼핑 행동의 실태를 다양한 측면에서 밝힌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한일 양국의 도시 매력을 일본 여행자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고, 제5장에서는 교통비의 변화는 일본으로의 도항 빈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제6장은 결론이다.

2. 조사의 개요

본 장에서는 제2회 한일의 도시 매력 비교 조사의 조사 개요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1) 조사의 방법

본 조사는 2000년 3월에 일본에 온 한국인 여행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일의 도시 매력 비교 조사와 같은 조사를 한국에 온 일본인 여행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조사 방법은 설문지법에 의한 앙케이트 조사이며, 부산에서 후쿠오카로의 복로 선상에서 배포 및 회수하였다. 하카타항과 한국 부산항을 연결하는 항로로는 카멜리아 라인(카멜리아(camellia)라고 약기)과 JR 큐슈 비틀(비틀(Beetle)이라고 약기)의 2개 정기 항로가 있다. 전회 조사에서는 카멜리아, 비틀의 양방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렇지만 카멜리아의 복로편(부산에서 하카타항)의 일본인 승객은 3%정도로 적어서, 카멜리아에서의 일본인 샘플의 집표가 곤란하여 금회에는 비틀에서만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 기간은 2002년 3월 상순부터 약 2주일, 유효 회수 표본수는 125개이다. 그리고 조사 시점 당시 비틀은 1일 2~3편 운행, 편도 약 3시간, 왕복 보통 할인 요금 약 24,000엔이다. 조사 방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조사 방법 : 설문지법에 의한 앙케이트 조사
- 조사 대상자 : 비틀을 이용한 일본인 여행자
- 배포 회수 방법 : 부산에서 후쿠오카로의 복로 선상에서 배포 및 회수
- 조사 기간 : 2002년 3월 상순부터 약 2주일
- 유효 회수 표본수 : 125개

2) 조사 내용

일본인 여행자의 행동 실태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을 주안으로 하여 개인 속성, 여행의 형태, 행동의 형태·이력, 한일 양국의 도시의 매력 등을 질문하였다. 질문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의 프로필 (2) 여행자의 한국으로의 도향 빈도 (3) 여행의 특징 (4) 부산 시내에서의 행동 (5) 한국내에서의 방문 장소와 재방문 의향 (6) 일본과 한국의 도시의 매력 비교 (7) 교통비와 도향 빈도의 관계

3) 조사 대상자의 프로필

금회 샘플이 된 조사 대상자의 프로필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조사 대상자 프로필(%)

성별	남성	여성	불명
n=125	49.6	39.2	11.2

연령	16-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불명
n=125	7.2	16.0	4.8	4.0	4.8	17.6	25.6	12.0	4.0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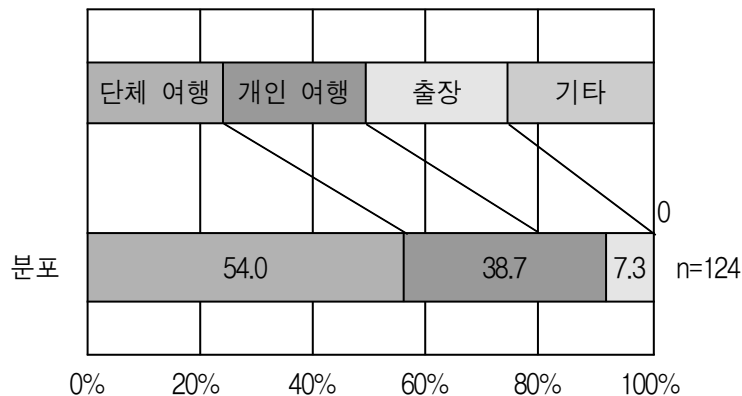
직업	고고생	단체·대학생	전문학교·재수생	전업주부	사무계직원	기술계직원	판매·서비스직원	노무직원	회사임원	자영업	자유업	파트·아르바이트	농림·어업	무직·가사	기타	불명
n=125	3.2	13.6	0.8	8.0	4.8	12.8	12.0	0.8	12.0	15.2	3.2	2.4	0.8	4.8	2.4	3.2

3. 일본인 여행자의 관광 쇼핑 행동

본 장에서는 일본인 여행자의 한국 체류 중 관광 행동, 쇼핑 행동을 몇 가지 측면에서 단순 집계 결과를 사용하여 제시한다.

1) 여행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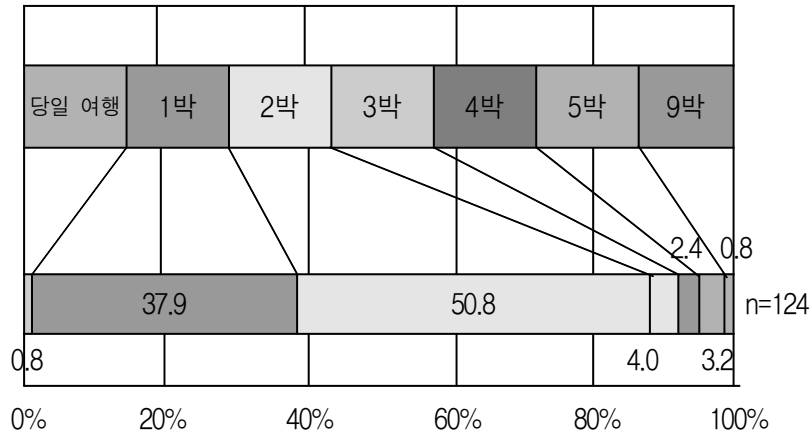
<그림 1>은 여행 형태를 집계한 것이다. 단체여행이 53.6%로 개인여행 38.4%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출장은 7.3%이다. 전회 실시한 한국인 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단체여행이 60.3%, 개인여행이 30.3%, 출장이 6.8%였었다(斎藤 편 [1], 斎藤·本村 [2]). 따라서 일본인 여행자 쪽이 개인여행, 출장의 비율이 약간 높지만 여행 형태의 비율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여행의 형태

2) 여행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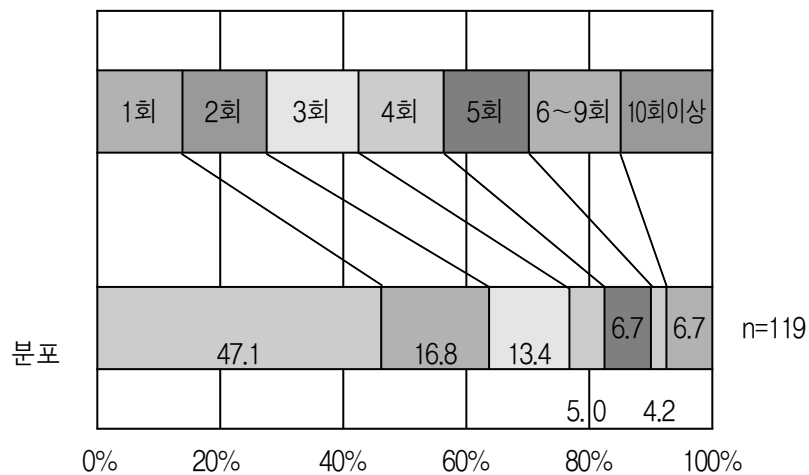
<그림 2>는 금회의 여행 일정을 숙박일수로 질문한 것이다. 2박이 가장 많아 50.8%를 점하고 있다. 다음으로 1박이 37.9%로 되어 있어, 상위 2개가 전체의 거의 9할을 점하고 있다. 당일 여행은 0.8%로 적지만, 일본인 여행자는 단기간 여행 일정으로 한국 여행을 행하고 있다는 특징을 알 수 있다.



<그림 2> 여행 일정(숙박일수)

3) 한국으로의 도향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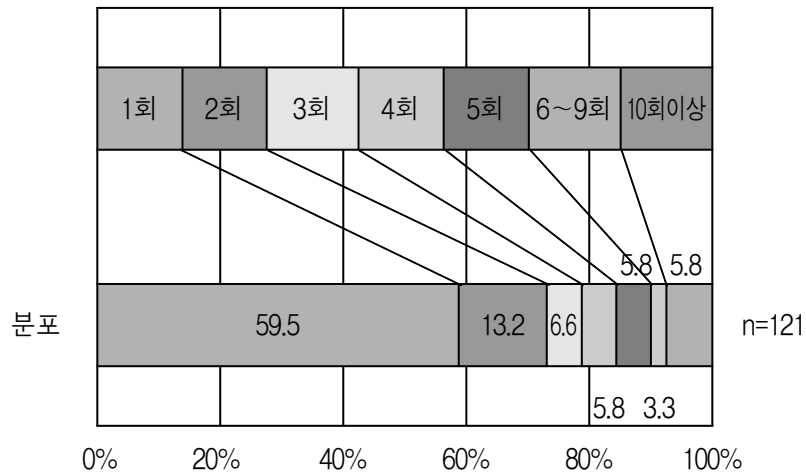
<그림 3>은 금회의 도향을 포함하여 과거 2년간에 한국에 얼마나 방문했는지의 도향 빈도를 질문한 항목의 집계 결과이다. 2회 이상이라고 대답한 샘플이 52.9%로 과반수를 넘어 복수회수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한국으로의 도향

4) 부산으로의 도항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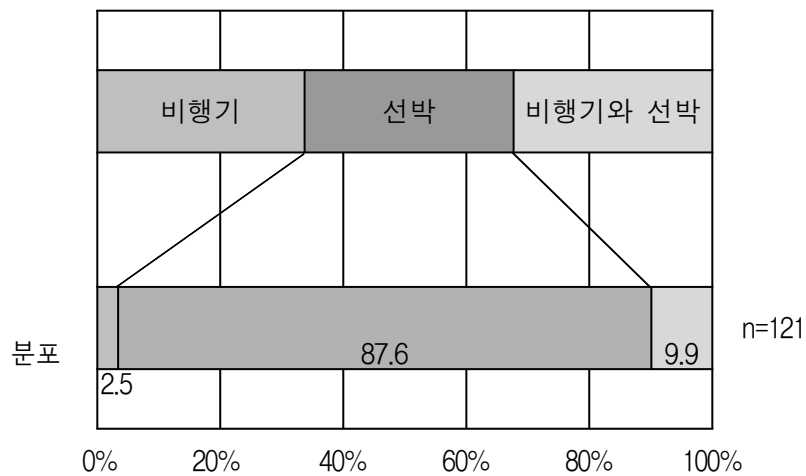
<그림 4>는 부산으로의 도항 빈도를 집계한 것이다. <그림 3>에서와 마찬가지로 금회의 여행을 포함시킨 것이다. 처음이라는 샘플의 비율이 59.5%로 한국 전체에 대한 방문에 대하여 12% 정도 높지만 복수회수로 방문하고 있는 사람도 4할이 넘게 존재하여, 많은 사람들이 부산을 재방문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그림 4> 부산으로의 도항

5) 이용 교통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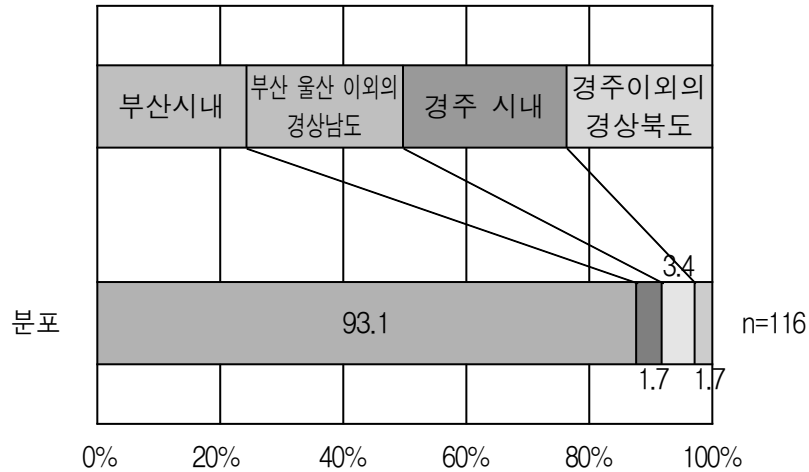
금회 방한시(왕복)의 이용 교통 수단은 비행기만을 이용하는 경우가 2.5%, 선박만 이용하는 경우가 87.6%, 비행기와 선박을 모두 이용하는 경우가 9.9%였다.



<그림 5> 교통 수단

6) 목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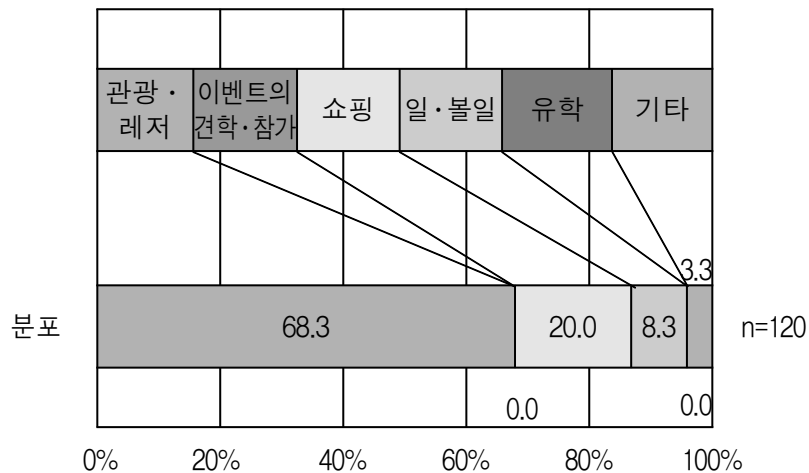
<그림 6>은 금회 여행의 주 목적지를 집계한 것이다. 조사표에는, 서울, 경기도, 전라남도 등의 지명도 들어 있었지만, 이러한 지명을 회답한 샘플은 없었다. 더욱이 같은 경상남도에서도 울산(蔚山)을 주 목적지로 든 사람도 없었고, 부산시내가 93.1%로 직접 목적지가 되고 있는 특징을 보였다.



<그림 6> 목적지

7) 목적

<그림 7>은 금회의 여행의 목적을 집계한 것이다. 방문목적은 관광·레저, 이벤트의 견학·참가, 쇼핑, 불일·일, 유학, 기타 등의 6가지로 구분했다. 관광·레저가 전체의 68.3%, 쇼핑이 20.0%, 상위 2개가 전체의 88.3%로 약 9할을 점하고 있다. 이벤트의 견학·참가, 유학을 선택한 샘플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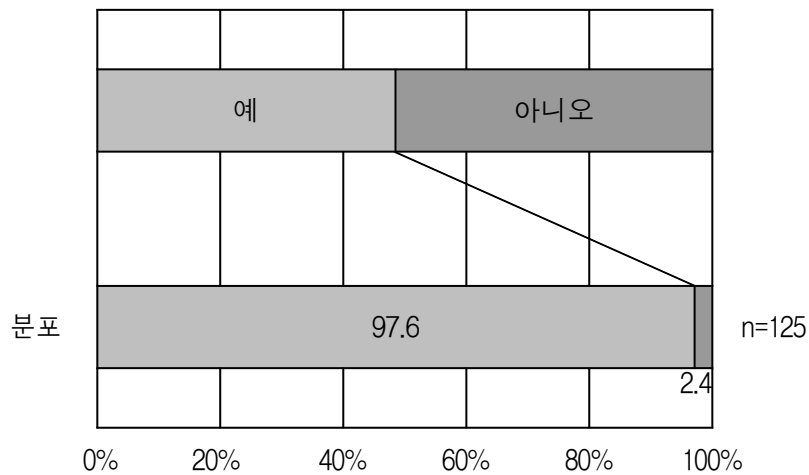


<그림 7> 목적

8) 부산시내에서의 숙박

a) 부산시에서의 숙박의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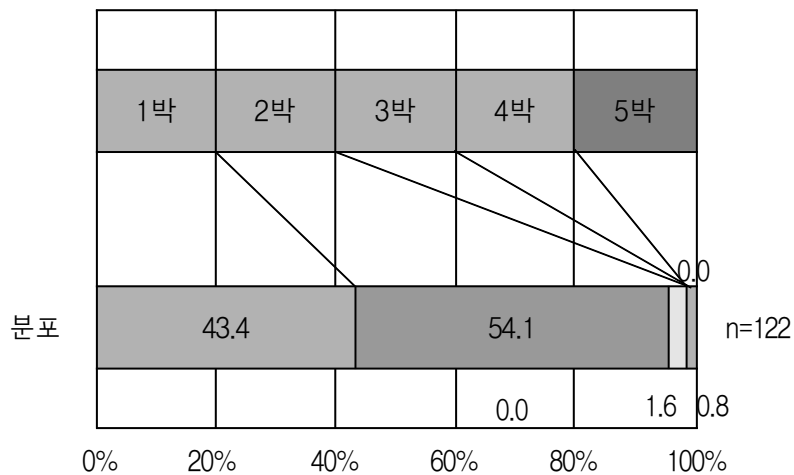
<그림 8>는 부산시내에서의 숙박 유무를 질문한 항목의 집계 결과이다. 부산시내에서 숙박한 사람이 전체의 97.6%를 점하고 있다. 2박 이내의 여행이 9할을 점하고 있고(<그림 2>참조) 또한, 주 목적지의 93.1%가 부산시내인 것과 합하면(<그림 6>참조), 비틀 승객의 대부분이 부산을 기점으로 해서 부산시내 및 그 근교에서 여행을 행하고 있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그림 8> 부산시에서의 숙박 유무

b) 부산시에서의 숙박 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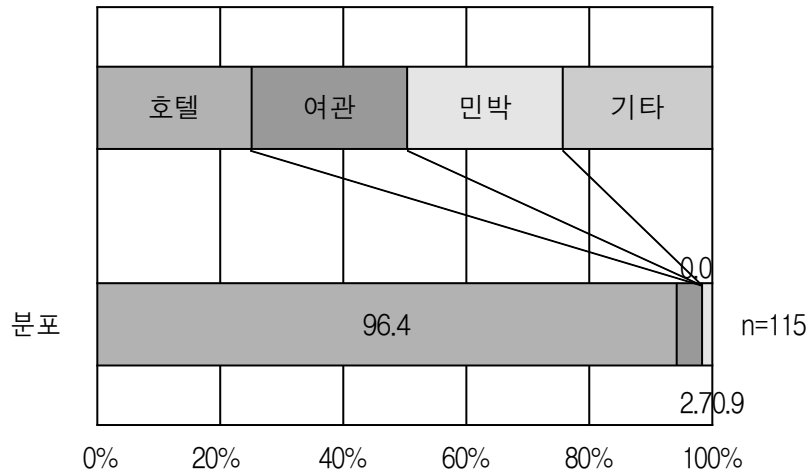
<그림 9>는 부산시에서의 숙박 일수를 나타낸 것이다. 숙박 일수는 2박으로 회답한 사람이 가장 많고 54.1%이다. 2박 이내로 회답한 사람이 97.5%를 점하고 있었고 5박 이상은 숙박하고 있는 회답은 없었다. 이것으로도 부산 방문객은 단기 체류형의 방문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9> 부산시에서의 숙박일수

c) 부산시에서의 숙박 시설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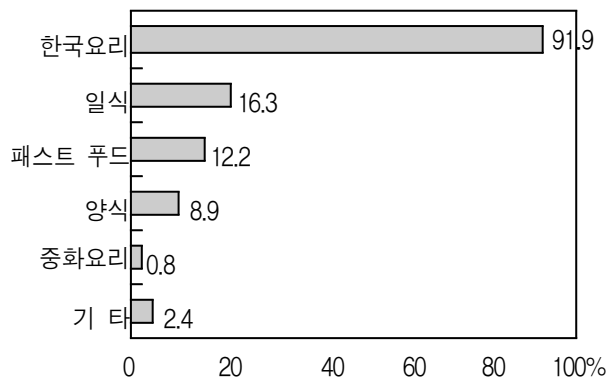
<그림 10>는 부산에서의 숙박 시설을 나타낸 것이다. 숙박 시설에 관해서는 96.4%가 호텔을 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가 여관, 기타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박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없었다.



<그림 10> 부산시에서의 숙박 시설

9) 부산시내에서의 식사 유무와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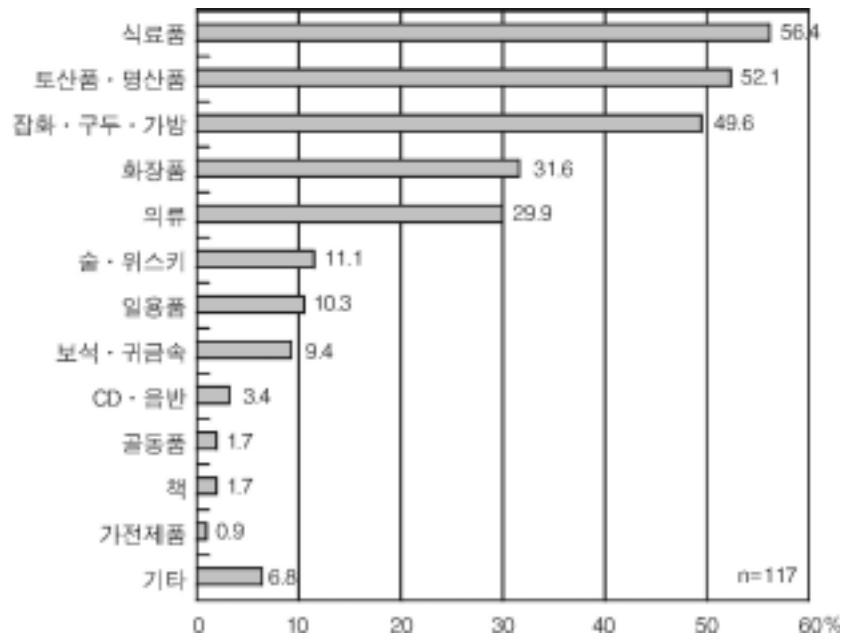
조사에서는 부산시내에서 식사를 했는가 아닌가를 물었다. 이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8.4%가 부산시내에서 식사를 했다고 하였다. <그림 11>은 부산시내에서 식사를 했다고 응답한 사람에 대하여 어떤 식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복수 회답으로 질문한 항목을 집계한 것이다. 식사의 종류는 일식, 양식, 중화요리, 한국요리, 에스닉(ethnic) 요리, 패스트 푸드(fast food), 기타의 7종류로 구분했다. 91.9%의 사람이 한국요리를 경험하였고, 다음으로 일본요리(16.3%), 패스트 푸드(12.2%)로 나타났다. 중화요리라고 답한 경우는 거의 없고(0.8%), 에스닉 요리라고 응답한 샘플은 없었다.



<그림 11> 식사의 종류

10) 부산 시내에서의 쇼핑 유무와 종류

조사에서는 부산시내에서 쇼핑을 했는가 아닌가를 질문하였다. 94.4%의 여행자가 부산 시내에서 쇼핑을 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12>는 부산시내에서 쇼핑을 했다고 대답한 샘플에 대하여 부산시내에서의 쇼핑의 종류에 대해서 복수 회답으로 질문한 항목을 집계한 것이다. 식료품(56.4%), 선물·명산품(52.1%), 잡화·구두·가방(49.5%)의 세가지가 50% 전후로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화장품(31.6%), 의류(29.9%)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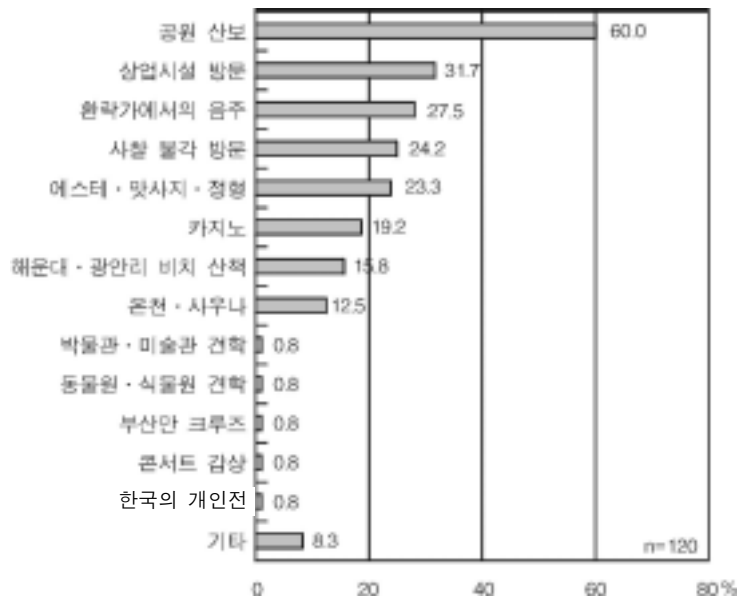


<그림 12> 부산시내에서의 쇼핑 품목

11) 부산시내에서의 행동

<그림 13>은 부산시내에서 실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묻는 항목을 집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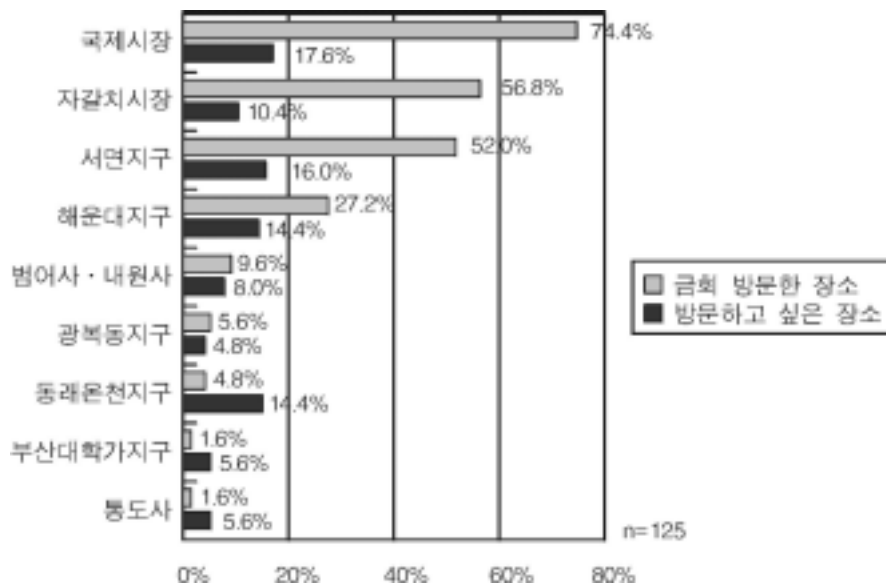
행동의 종류를 목적별로 구분하고 여기에서는 행동을 21개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의 21개 종류의 행동에 대해서 부산시내에서 행한 행동을 복수 회답으로 대답하게 했다. 그 중, 스포츠 관전과 뮤지컬 관람 등 7개의 행동에 대해서는 회답이 없었고, 그래프 상은 14개 행동에 대해 응답이 있었다. 공원 산보(60.0%)가 다른 것과 비교해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상업시설 방문(31.7%), 환락가에서의 음주(27.5%) 등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선택 행동에 있어 한가지를 응답한 회답이 30.0%, 2개 선택이 33.3%, 3개 선택이 23.3%로 응답수 3개 이하가 전체의 86.7%에 달하여, 여행자의 부산시내에서의 행동이 한정된 형태로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3> 부산시내에서의 행동

12) 부산시내 주요 시설에 대한 방문 · 재방문 의향

부산시를 서면지구, 광복동지구, 자갈치시장, 국제시장, 해운대지구, 부산대학가지구, 동래 온천 지구, 범어사 · 내원사, 통도사 등 9개 지구로 나누어서 그 지구 방문의 유무, 목적, 방문 · 재방문 의향을 물었다. <표 2>는 이들 항목의 집계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표는 특정 장소에 방문한 여행자의 방문 목적별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4>는 금회 방문한 장소와 금후 방문해 보고 싶은 장소에 관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4> 부산시내 주요 시설에 대한 방문·재방문 의향(전체)

<표 2> 부산시내 주요 시설에 대한 방문·재방문 의향

	금회 방문한 장소	목적(복수 회답)		방문하고 싶은 장소
		쇼핑	식사	
국제시장	74.4%	62.4%	29.0%	17.6%
		35.5%		
자갈치시장	56.8%	25.4%	22.5%	10.4%
		56.3%		
서면지구	52.0%	72.3%	18.5%	16.0%
		30.8%		
해운대지구	27.2%	17.6%	20.6%	14.4%
		64.7%		
범어사·내원사	9.6%	0.0%	0.0%	8.0%
		83.3%		
광복동지구	5.6%	57.1%	28.6%	4.8%
		42.9%		
동래온천지구	4.8%	0.0%	16.7%	14.4%
		16.7%		
부산대학가지구	1.6%	50.0%	50.0%	5.6%
		100.0%		
통도사	1.6%	0.0%	0.0%	5.6%
		50.0%		

n=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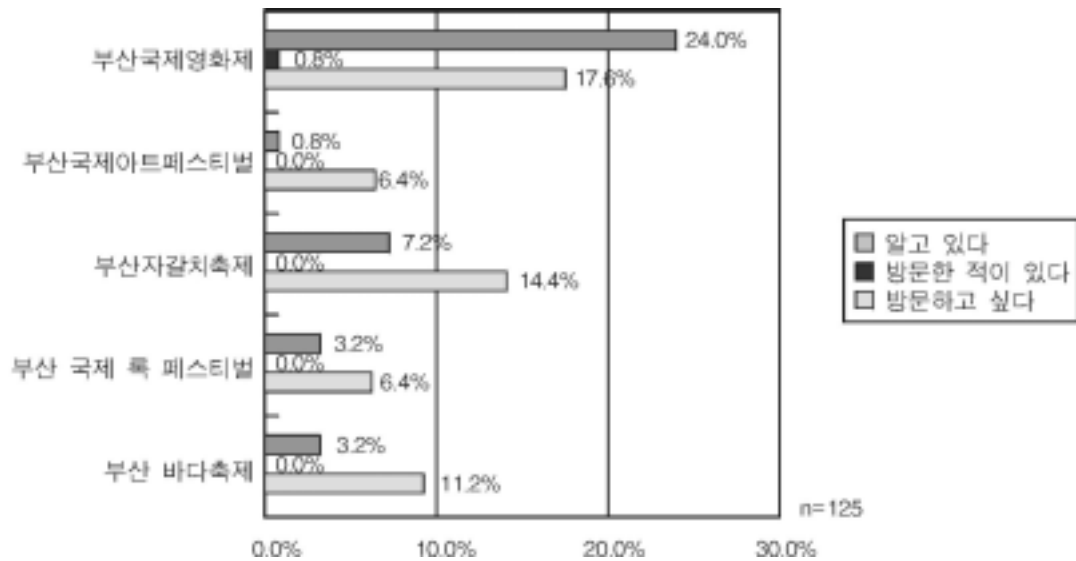
13) 부산시내 주요 이벤트의 인식도와 방문 의향

<표 3>은 부산 시내의 주요 이벤트에 대해서 그 인지도, 방문경험, 방문의향을 묻은 항목을 집계한 것이다. 부산 국제 영화제에 대해서는 방문경험은 0.8%으로 낮지만, 인지도에서는 24.0%, 금 후 방문하고 싶다는 응답이 17.6%로 높아, 다른 이벤트에 비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부산시의 주요 이벤트

	알고 있다	방문한 적이 있다	방문하고 싶다
부산국제영화제	24.0%	0.8%	17.6%
부산국제아트페스티벌	0.8%	0.0%	6.4%
부산자갈치축제	7.2%	0.0%	14.4%
부산 국제 록 페스티벌	3.2%	0.0%	6.4%
부산 바다축제	3.2%	0.0%	11.2%

n=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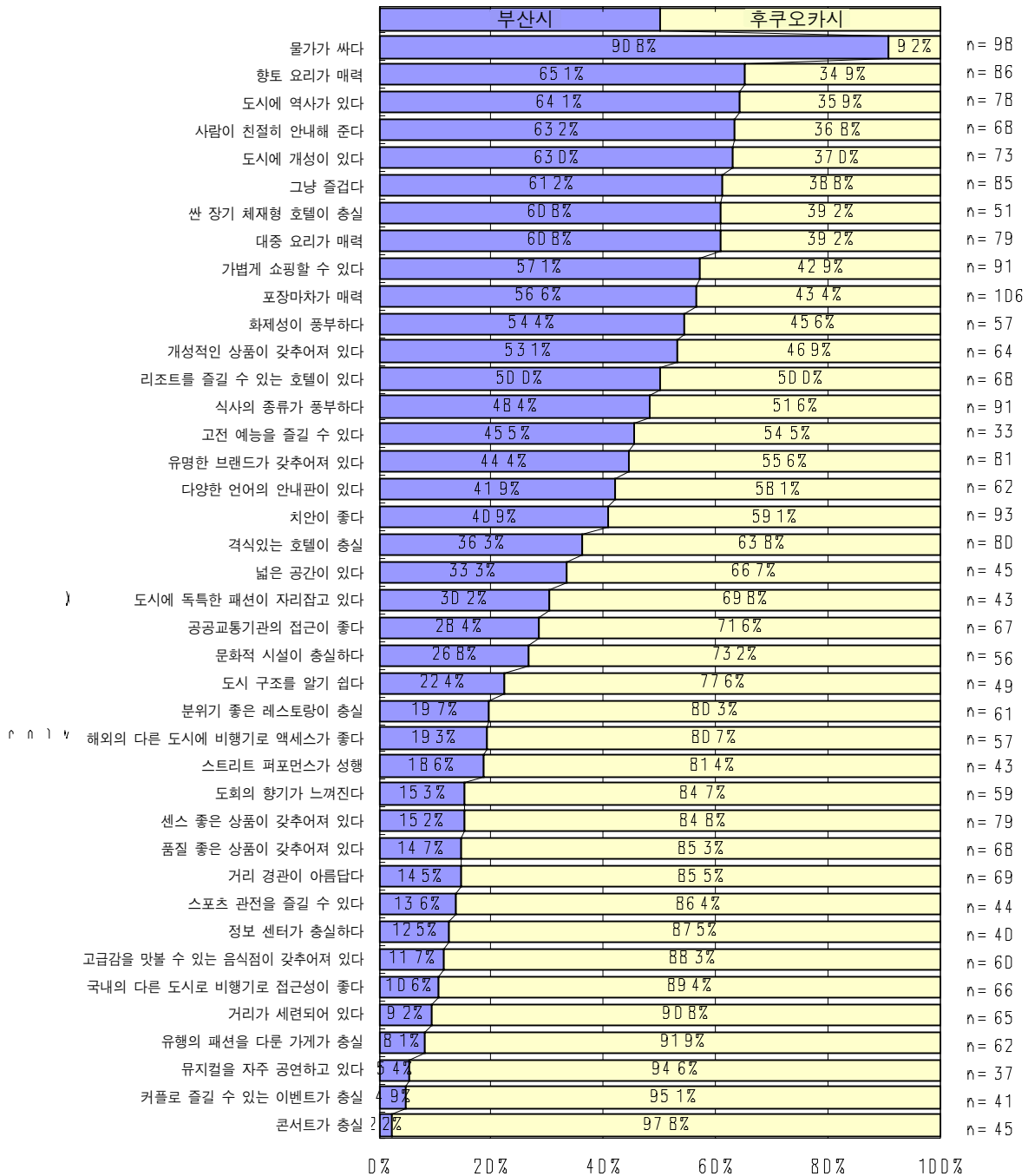
<그림 15> 부산시의 주요 이벤트

4. 한일 양국의 도시 매력 비교

1) 한국의 도시와 후쿠오카시의 매력 비교

금회 조사에서는 도시의 매력 요인을 물품판매계, 음식계, 이벤트계, 숙박계, 산책계, 안내계, 기타 등에서 도시 매력 요인 40개 항목을 들고 후쿠오카시와 한국 도시(부산시)를 비교하는 질문을 하였다. <그림 16>은 그 집계 결과이다.

부산시는 「물가가 싸다」, 「향토 요리가 매력적이다」 등과 같이 물가와 음식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후쿠오카시에서는 「콘서트가 충실」, 「커플로 즐길 수 있는 이벤트가 충실」, 「뮤지컬을 자주 공연하고 있다」 등 이벤트계에 관한 항목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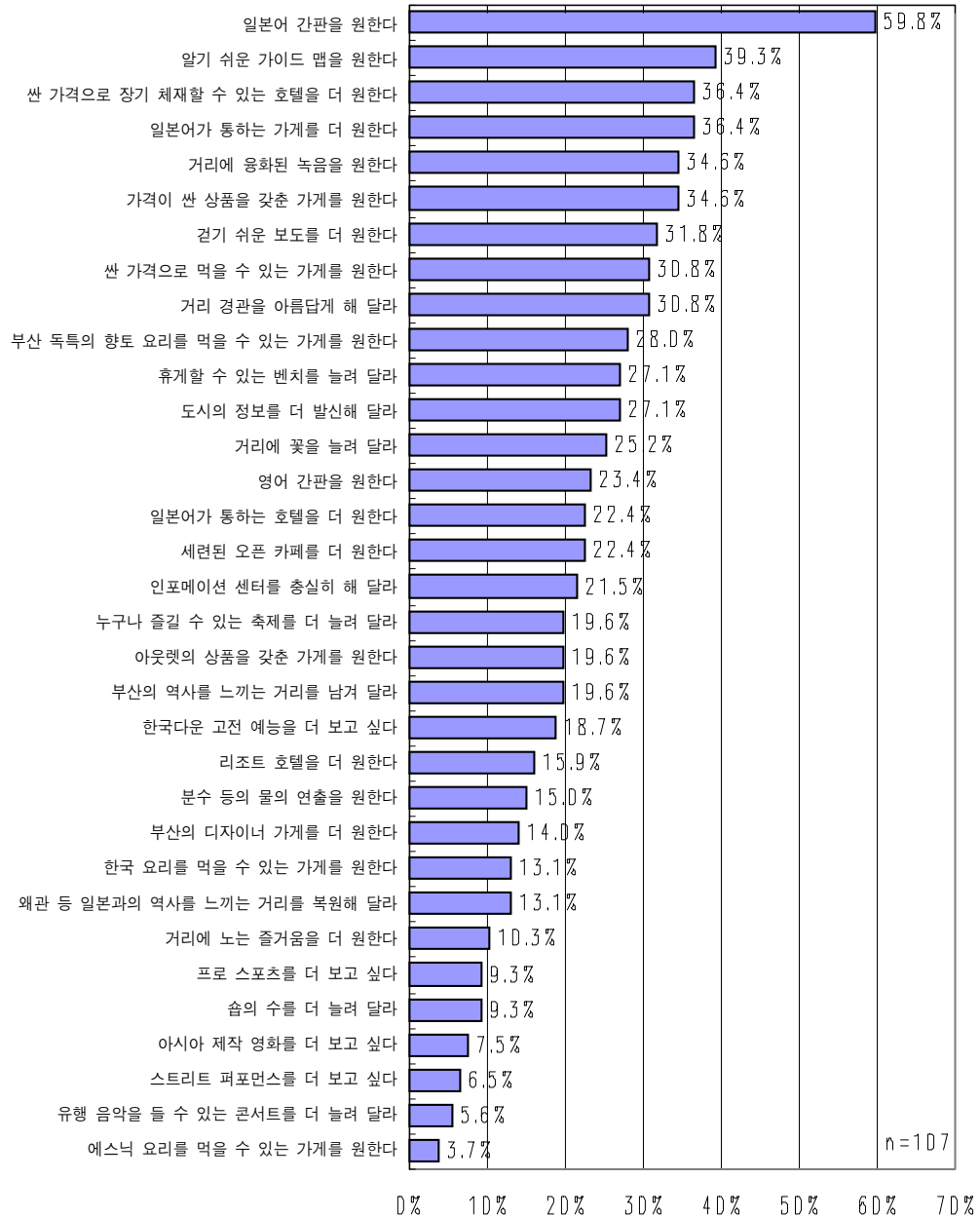


<그림 16> 한국의 도시(부산시)와 후쿠오카시의 매력 비교

2) 부산시에 대한 요망

<그림 17>은 부산시에 대한 요망을 집계한 것이다. 부산시에 대한 요망에서는 「일본어 간판을

원한다」가 월등하게 많고(59.8%), 다음으로 「알기 쉬운 가이드 맵을 원한다」(39.3%), 「싼 가격으로 장기 체재할 수 있는 호텔을 원한다」(36.4%), 「일본어가 통하는 가게를 원한다」(36.4%) 등의 안내계나 여행에 관한 항목의 요망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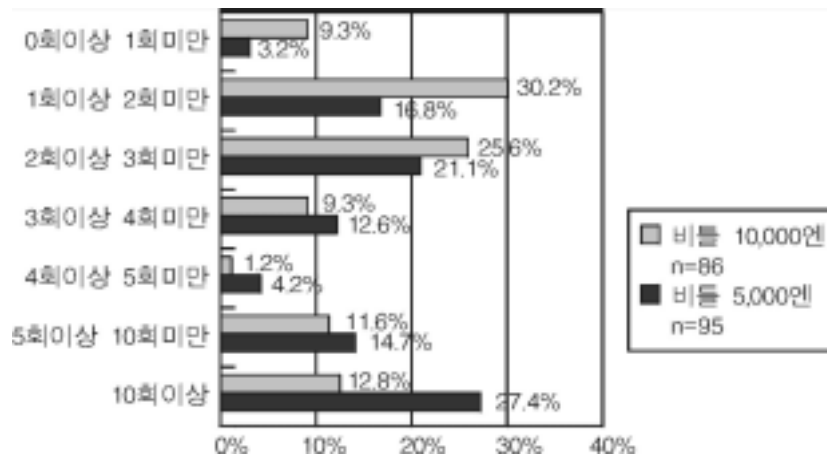


<그림 17> 부산시에 대한 요망

5. 교통비와 도항 빈도의 관계에 관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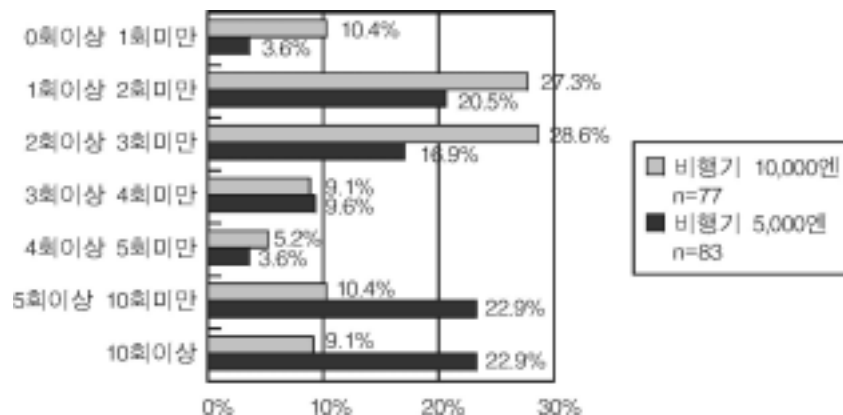
2002년 3월의 현재 가격이 비틀 왕복 24,000엔, 비행기는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할 경우, 왕복 31,400엔이었다. 이 요금이 비틀과 비행기로 각각 10,000엔, 5,000엔이 되었을 경우 부산에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얼마만큼 방문할지의 의향을 조사했다. <그림 18>은 비틀을 이용할 경우, <그림 19>는 비행기를 이용할 경우의 집계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또한, 이들 항목의 평균은 비틀을 이용할 경우, 왕복 10,000엔일 때 4.13회, 5,000엔일 때 7.16회, 한편 비행기를 이용할 경우는 10,000엔일 때 3.77회, 5,000엔일 때 6.44회로 나타났다.³⁾

a) 비틀을 이용할 경우



<그림 18> 비틀 이용의 도항 빈도

b) 비행기를 이용할 경우



<그림 19> 비행기 이용의 여행 빈도

3) 비행기 이용 왕복 5,000엔의 경우 응답자에 있어 1년간에 365회 부산 방문이라는 샘플은 제외하였다.

6. 결론과 금후의 과제

금회 일본인의 한국 여행자를 대상으로 2회째 한일의 도시 매력 비교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서 여행의 형태, 한국으로의 여행 빈도, 목적지, 식사나 쇼핑 행동, 그리고 도시 매력의 비교 등, 여행자의 행동 특성을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조사에서 선박을 이용하는 일본인 여행자는 단기 체재하고, 부산이나 그 주변을 주유하는 패턴이 보이고 있다는 것, 또한 여러차례 한국을 방문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여행자가 많다는 것 등 몇가지 흥미 깊은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이들은 일본인에게 있어서 한국, 특히 부산이 가볍고 가까운 관광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금회의 조사와 제1회의 조사를 비교 분석하고 일본으로의 한국인 여행자와 한국으로의 일본인 여행자의 특성의 차이를 밝히는 것을 금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또한, 비행기 이용자로 조사 대상을 확대한 조사의 실시, 중국이나 대만 등의 동 아시아 제국으로의 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그리고 일본인 여행자의 한국으로의 도항 수요 관수의 추정도 금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사례의 말씀

본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JR규슈의 선박 사업부의 師村 博 부장님을 비롯하여, 선박 사업부의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이 사의를 표합니다.

참고문헌

- 1) 齋藤 参郎(2000) 『후쿠오카 도심부 회유 행동 조사 조사 보고서-지하 공간과 한일 도시 매력 비교에 초점을 맞춰서』, 재단 법인 도시 과학 연구소.
- 2) 齋藤 参郎·本村 裕之(2001), 국제 도시 관광 쇼핑 행동의 기초적 조사 연구, 해협권연구, 제1호.